분식회계의 덫, 국가 경제에 악영향

분식회계의 덫… 국가경제까지 망친다

등기임원 아니더라도 분식회계 지시 땐 처벌

등기임원이 아닌 경영진도 분식회계를 지시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.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'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(외감법)'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. 개정안은 정부 입법으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. _ 동아일보 4월 17일 자 B1면

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회계(Accounting)를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극찬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

- 회계는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표준화된 기록이자 '기업의 언어'로 워렌 버핏도 자녀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은 딱 한 가지라고 말함

회계는 누가 가장 먼저 발명했나요?

- 1494년 11월 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루카 파치올리(Luca Pacioli)*가 〈산술·기하·비율 및 비례 총람〉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
  – 저서의 제1부 제9편 제11장의 '상업적 계산과 기록'에서 복식 부기를 기술
- 복식 부기는 상업 발달의 촉진제 역할을 하며 서구의 경제 발전을 이끈 것으로 평가
  – 순이익과 순자산을 산출하는 등 사업 상황 전체를 한눈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

우리나라의 회계에 대한 옛 기록, 〈송도부기〉

정식 명칭	사개송도치부법(四介松都治簿法) 또는 송도사개치부법
사용 시기	12세기 고려 말엽~조선 시대(서양 부기보다 200년 前)
부기 조직	봉차(자산), 급차(부채), 이익, 손해로 구성
보조 장부	현금 출납장, 물품 거래장, 위탁물 처리장, 어음 수지장 등
학계 주장	세종대왕 때 금속 활자와 함께 해외로 유출

* 이탈리아의 수학자로 '회계학의 아버지'라고 불리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이기도 함

작성자 : 금융산업팀 과장 조용수 ☎02-6322-5111

본래 목적을 상실한 분식회계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, 경제 주체들 간의 신뢰에 큰 타격

- 과거부터 회계의 근본 목적은 각종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적발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더욱 탄탄히 하고 국가 경영의 기틀을 형성하는 것임
  - 15세기 조선 시대 세종대왕은 감합법(勘合法)*과 중기(重記)** 제도를 활용함
  - 18세기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건국 지도자들(조지 워싱턴, 토마스 제퍼슨 등)은 모두 회계 지식이 밝았다고 함
- 기업의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왜곡한 분식회계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결국 투자 위축과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
  - 2000년대 초 미국은 엔론 사태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, 한국도 41조 원 규모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태로 30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됨

기업의 언어인 회계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

회계 투명성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

(단위 : 조 원)

구 분('08년 기준)		주식 시장 규모	국가 전체 이자 비용
경제적 규모 추정액		38	-15
	핀란드 수준 개선	252	-76

자료 : '불투명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(2010, 정석우 공저)' 보고서 인용

① **[관리]** 회계의 작성, 감사, 감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수시로 점검 및 보완하는 등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

② **[예방]** 회계 부정은 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으로 경각심 제고 및 내부 고발자의 구체적인 보호 장치 필요
  - 금융위원회의 '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(외감법)' 개정안에 따르면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대상 범위 및 수위가 강화될 예정

③ **[교육]** 소액 투자자들의 회계 언어 해석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투자자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

당행도 보다 경쟁력 있는 中企 금융 지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기업의 회계 자료 해석 능력 등 신용 분석 역량 강화 필요

* 서류의 좌우 대조 확인으로 출납 위조를 방지 ** 복식 부기의 기본 원리인 이중 기입